

From 편집국

사회적 사안을 이야기하는 첫 단계

며칠 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할 일이 있었다. 서로 어색한 자리에 어정쩡한 미소만 지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한 분이 분위기를 불편하셨는지 화제를 던지셨다. 사십여 분이 지나자 어느새 자리는 감정이 상한 이들의 거센 발언들로 불이 붙고 있었다. 불씨는 “지금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채원
편집부국장

“
다름을 표현하고
존중하는 말하기

한국에서 흔히들 처음 만난 사람과 해서는 안 되는 대화 주제가 몇 가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인종, 종교, 젠더 그리고 정치. 자칫하면 상대방을 알아가기도 전에 언쟁으로 변질 수 있기 때문일까. 다소 민감한 주제들이다.

최근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다. 프랑스에서의 생활이 어떻냐는 질문에 친구는 프랑스 사람들과의 대화에 적응하는 중이라고 했다. 당연히 언어에 익숙해진다는 의미인 줄만 알았다.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했던 한국과는 다르게 정치적 관점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프랑스 문화가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침착하게 마주하고 있었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는 타운홀 미팅 형태의 대국민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2월12일

프랑스 파리 11구 구청 회의실에는 200명이 넘는 시민이 모였다.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 이후 정치 전략을 소통으로 바꾼 것이다. 1월15일부터 두 달간의 토론회 개최 제안 이후, 2월12일까지 프랑스 전역에서는 2886회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의 주제는 세금, 국가와 공공기관, 생태적 전환, 민주주의와 시민권 등 4가지다.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시민들이 각 테이블에는 6~8명이 모여 약 1시간의 토론을 이어간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토론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은 올해 4월 토론 결과에 따른 정부 계획과 함께 발표 예정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만, 대국민 토론회 이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노란 조끼 시위 이전 수준인 30%대를 회복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토론장의 분위기다. 각자의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나 증오를 담은 발언들은 들리지 않는다. 상대방이 나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내비치더라도 서운해 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모습이 다. 되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의 태도로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한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대화.

하나의 목소리만 울다도 결론 지으려 하지 않자니 민감하게 느껴지던 주제들도 까다롭지만은 않다.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나와 다른 의견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님을 알고 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표현하는 것에 부담감이 없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부러움에, 며칠 전 모임 자리가 떠올라 아쉬운 표정만 지어졌다.

양한주의 취보내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수 1주년의 소회

모두 축하해주시기 바란다. 글을 쓰는 오늘(2월26일)은 나의 ‘백수 1주년’이다. 친구 졸업을 축하해주려 졸업식에 갔다가 새삼 이 사실을 깨달았다. 작년 이맘 때 나도 졸업을 했었지. 신나게 학사모를 던지며 곧 기사가 되리라 기대했었지. 그게 벌써 1년이 됐다. 기쁜 이날, 서른 번째 ‘탈락’ 소식이 선물로 도착했다. 오늘도 취업문 대신 내가 뵈게졌구나. 그러나 2년차 백수는 울지 않는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양한주 선임기자
이데학보 전 편집국장
현 언론사 입사 지망생

“
탈락을 슬퍼할 시간에
곰팡이를 먹겠다

오늘 할 일을 정리해보자. 우선 아침 9시 스테디로 하루를 시작한다. 카페에 모여 상식 시험을 본 후 내 상식 수준이 문제인지, 이걸 ‘상식’이라고 부르는 게 문제인지 고민한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눈술 한 편을 쓰고 첨삭과 토론을 한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신문부터 정독한다. 오늘 쓴 눈술을 퇴고하고, 지금 이 글도 완성할 계획이다.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 과제도 해야 한다. 관련 기사와 칼럼, 논문을 찾아 읽으며 설득력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정리한다. 그 외에도 다음 눈술 준비 등 몇 가지 일이 남아있지만, 오늘보다 성실할 내일의 나에게 맡기기로 한다. 저녁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곰팡이를 먹어야 한다!

취업 분투기를 쓴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얼마나 힘든지’를 궁금해 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었다. 구구절절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글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른 번 정도 떨어지고 나면 힘들음을 희석시키는 나름의 방법을 찾지 마련이다. 곰팡이는 그 중 하나다. 소주도 곁들이며 ‘이 정도로 했는데 안 될 걸 보니 아무래도 청년 실업이 정말 심각한 것 같다’며 나라 걱정을 했다. e북 리더기만 들고 혼자 바다를 보러 가기도 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개진 나를 더 단단하게 불렀다. 냉정하게 패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내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졸업 전 반년까지, 총 1년 반 동안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 분투했다. 불합격하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뜯었다. 탈모와 맞바꾼 깨달음을 공유하려고 한다. 나에게겐 문제가 없다는 것, 때때로 문제가 없어도 잘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결국 될 거라는 것, 어차피 ‘될 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탈락한 번에 일회일비하지 않았다. 탈락의 이유를 이리저리 궁리할 시간에 곰팡이를 먹고 다시 책상에 앉았다. 흘러가는 시간에 조바심내지 않고 나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게 내가 이 시간을 버티는 방법이다.

아직 취준생인 마당에 취업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거나 조언을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건 아니다. 당연히 그러지도 못한 다. 내 ‘노오력’을 인정받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도 없지 않다. 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취준생으로서 취준이 막막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금 줄여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함께 취업준비를 하는 동년배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영광이겠다. 그도 아니라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간접 체험하는 재미라도 느낄 수 있길. 혹시 이 글을 보고 있을 인사담당자에게도 한 말씀 올리겠다. “이쯤 했으면 뽑아줍시다!”

여론광장

자치는 ‘저절로’ 가 아닌 ‘스스로’

“단대실이 어땠어요?”
대학생활 2년간 학생회 집행부로 일을 하다 단대 대표까지 하게 된 내게 가장 신경 쓰이는 질문이다. 포스코관 어둡한 복도 끝 모여있는 과방과 단대실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지의 세계와도 같겠지만, 이 질문이 내게 더욱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 ‘어디 있냐’는 질문이 단순히 단대실의 위치를 묻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단대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복지 사업의 의미에 대한 질문, 학생 자치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처럼 다가오곤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자치의 의미는 1. 저절로 다스리렵 2.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 두 가지이다. 그러나 학생 ‘자치’의 경우, ‘저절로’가 아닌 ‘스스로’의 의미가 가깝다.

학생 자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휘될 수 있다. 간단하게는 정문에서 배부되는 선전물을 한번 훑어보는 것부터 직접 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까지. 사실상 학생 자치는 우리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모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스스로 관심을 두고 스스로 동참하는 학생들이 모여 강력하고 건강한 학생 자치를 이루어낸다.

그렇기에 학생 자치를 주도하는 학생회에 가장 두려운 것은 비판이 아닌 무관심이 아닐까. 학생 자치는 학교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없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 자치에 무관심한 이들에게 모든 탓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 무관심이 비단 한 개인의 성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누구도 시킨 적 없지만 과에 대한 애정, 소속단체에 대한 애정으로 학생회를 꾸려가는 모든 ‘스스로’ 역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자치가 학생 개인의 삶에 깃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의 무관심에는 그 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화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무엇이든 ‘저절로’ 된 것은 없었다. 2019년의 이화의 학생 자치 역시 이화의 일을 곧 자기 일이라 여기는 1만5000명의 ‘스스로’에 의해 이뤄지지 않을까. 누군가 알아서 해주는 자치가 아닌, 누군가 당연히 참여해주는 자치가 아닌, 이화인 모두가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이화다운 학생 자치를 기대해본다.

원은설(정외·17)

상록탑

아직도 ‘버닝썬 동영상’ 검색하세요?



자치행정팀
김수현 취재부장

최근 강남의 한 클럽이 경찰과 유착해 폭행, 성접대, 마약 등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물뽕(GHB·강간 약물)’에 취한 여성을 돕던 일반인이 클럽 직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당한 것이 시적이었다. 이 클럽은 ‘버닝썬’으로, 유명 연예인 승리가 운영한다고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말 그대로 ‘버닝썬 게이트’였다. 폭행 사건이 공론화되며 클럽 강간 약물 성폭력, 유혹업소와 경찰의 유착관계, 조직적인 마약 공급체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력 정치인이 마약을 흡입하고 승리가 성접대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버닝썬’은 며칠간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언론은 새롭고 자극적인 내용들을 앞다퉈 보도했다.

최초 제보자가 사건을 공론화했을 때, 사람들은 “경찰이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 있냐”며 분노했다. 이후 클럽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했음이 드러나고, 유력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이 연루되고, 경찰이 모든 사실을 눈 감은 정황이 발견됐을 때 마치 영화 같아지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만수무침 세트’를 비롯해 버닝썬에서 판매하는 술의 가격까지 화제가 될 정도였다.

하지만 이 중 버닝썬 VIP 방에서 성폭행당했던 여성 피해자들에 공감하고 분노한 사람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현재 온라인에는 VIP 방에서의 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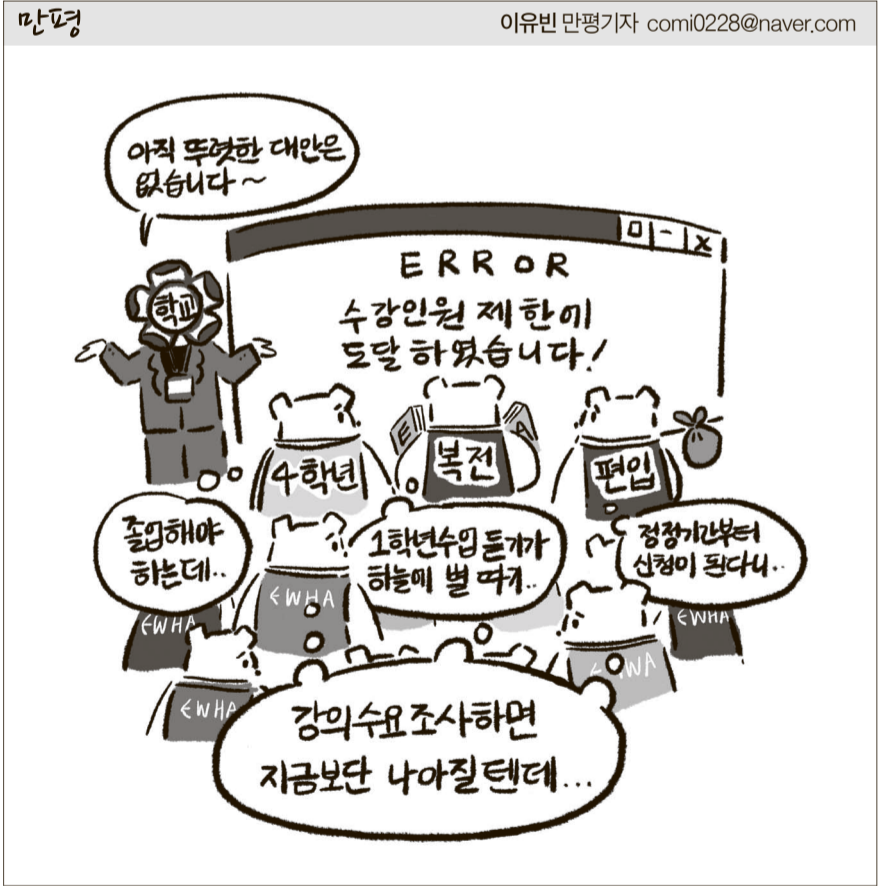
영상이 나온다. 대표이사는 영상 속의 클럽이 버닝썬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여성이 클럽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GHB를 흡입하고, 정신을 잃은 후 VIP 방으로 옮겨졌다. 직원들은 묵인했고,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채 고객 유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

그러나 언론과 대중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보다, 여성 피해자들을 ‘버닝썬 게이트’의 ‘게이트’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건을 연예인, 정치인, 경찰이 얽힌 마약 문제가 드러난 계기 정도로 여긴다는 말이다. 승리, 자유 한국당, 강남경찰서에 치중된 언론의 보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 ‘물뽕’을 검색하면 ‘버닝썬의 물뽕’을 판다는 글이 발견될 정도로 아직까지 강간 약물은 손쉽게 구입 가능하다. 진정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이런 글들은 규제가 됐을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한 카페의 화환 문구인 ‘오늘도 물뽕 커피 작업하시나요?’를 보더라도 대중이 강간 약물과 피해자를 얼마나 오락적인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을 겨냥한 2차 가해도 심각하다. 포털 사이트에 해당 클럽을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뜨는 연관 검색어는 ‘버닝썬 VIP룸 동영상’, ‘버닝썬 동영상 여자’, ‘국산 버닝썬 동영상’이다. 인터넷에는 여자가 클럽에 가는 것 자체가 성폭행당할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등의 댓글들이 넘쳐난다.

성폭행을 당할만한 사람은 없다. 지위 저도 권좌는 피해자도 없다. 버닝썬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 시점, 여성 피해자들이 지위지고,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때이다.



금주의 책



19호실로 가다 - 도리스 레싱 지음, 서울: 문예출판사, 2018
이 책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도리스 레싱의 초기 단편 소설을 묶은 작품 집입니다. 작가는 영국인으로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경험을 살려 인종 차별 문제부터 여성의 권리 문제, 가족과 개인의 역할까지 다양한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그녀에게 작품을 쓴다는 것은 금기와 선입견에 맞서는 일이며, 권위와 억압이라는 집단 폭력으로부터 인간 개인의 개성적인 삶과 정체성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표제작인 「19호실로 가다」는 개인으로서 여성의 삶에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깊숙이 파고드는 관찰력과 모든 것을 담아내는 뛰어난 표현력은 한 시대를 뛰어넘어 공감대를 끌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새하기를 맞아 ‘도전’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작가와 작품을 이화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3층 일반자료실 823L566한 1]